

대한불교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에 대한 재검토 - 삼대강령과 삼대지표를 중심으로 -

이병욱
중앙승가대 강사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대한불교천태종(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불교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장에서는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에 대해 알아본다. 그것은 「교시문」에 잘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사회대중을 잘 교화해서 지상에 불국정도를 이루자는 것이다. 또 공동생활의 기본정신을 밝히는 대목도 있는데, 그 내용은 화(和)의 정신을 강조하는 것, 관용과 유화로 포용하는 것, 베푸는 불교가 되는 것이다. 3장에서는 불교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두 가지 노선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삼대강령은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점차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이 삼대강령은 밝은 자아의 개현,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실현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밝은 자아의 개현'은 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밝은 생활의 창조'는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것인데, 구체적 방법으로 십선도를 제시한다. 셋째, '밝은 사회의 실현'은 꾸준한 교화를 통해서 밝은 사회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리고 삼대지표는 불교종단(천태종)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삼대지표는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라는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대중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를 말한다. 둘째, '생활불교'는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따로 불

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애국불교'는 불교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제어: 불국정토, 밝은 자아의 개현,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실현, 대중 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

I. 서론

대한불교천태종(천태종)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종단의 하나이다. 천태종은 1970년에 불교종단으로 등록하였고, 그 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71년 사찰이 92개소, 신도 15만 8천 7백여 명이었는데, 그것이 2010년 3월 현재 사찰 160여 개소, 신도 250여만 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천태종 수행의 특징적 모습은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안거제도에 있다. 천태종에서는 안거를 여름과 겨울에 각각 1개월씩 전국의 사찰에서 동시에 실행한다. 또 1999년 사회복지법인 '천태종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3년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를 창립해서 북한 사찰(개성의 영통사)의 복원사업을 하였다. 그밖에도 천태종에서는 교육과 문화사업, 국제교류에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

1971년 상월(上月, 1911-1974) 대조사는 「교시문(教示文)」을 발표하였다. 이 「교시문」에서는 천태종은 1400년의 유구한 연원(淵源)과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천태종의 종지(宗旨)는 『법화경』에 의거한 것인데, 그것은 우주와 인생의 실상(實相)을 밝히고, 그리고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되는 이치를 밝힌 것이다. 천태종의 가르침은 신라시대부터 전해져오다가, 고려시대 중엽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에 의해 천태종이 세워졌고, 이 천태종은 고려 시대에는 불교의 중심세력으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의 배불정책(排佛政策)으로 인해 천태종이 한반도에서 사라졌다. 「교시문」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천태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현재의 대한불교천태종이라고 한다.²⁾

1) 원각불교사상연구원 편 2010, 369-384.

2) 『불멸의 등명』, 163-164.

이 글에서는 앞에 소개한 것처럼, 다시 세워진 대한불교천태종(천태종)에 나타난 불교공동체 정신, 곧 적극적 교화활동을 통해 불교적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정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 천태종의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삼대강령'과 '삼대지표'는 천태종에서 불교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 2장에서는 천태종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천태종의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에 대해 알아본다.

II.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

천태종의 「교시문」에서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불교적 이상사회 추구)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불교의 근본정신이 이상세계(理想世界)를 이루려는 것인데, 이 이상세계는 지상에 불국정도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인류에게 참다운 생명의 원리(原理)를 열어 보이시고 올바른 생활법칙을 가르쳐 주시어 스스로 삶의 참다운 뜻을 깨우치고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창조케 하며 나아가 온 중생계를 각화(覺化)·정화(淨化)하며 온갖 죄악과 모순이 없고 광명과 정복(淨福)으로 꾸며진 이상세계(理想世界)를 구현하려 함은 부처님이 교(敎)를 세우신 근본정신이시며, 이 교지를 받들어 스스로 그 인격을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대중을 교화하여 지상에 불국정도를 실현함이 우리 불자의 근본사명이다.³⁾

또한 『불멸의 등명』에서 공동생활의 기본정신을 밝힌 대목이 있다. 여기서는 3가지 항목을 제시한다. 첫째, 화(和)로써 공동생활의 기본정신을 삼는다는 것이다.⁴⁾ 상월대조사가 화(和)의 정신을 강조한 점은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대한불교천태종에서 발간된 상월원각대조사의 어록이나 법문집 등을 인용할 때는 경전에 준하여 책 제목과 페이지만을 나타낸다.

3) 『천태종성전』, 564-565.

4) 『불멸의 등명』, 84.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나 집착을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떤 공동체 내부에서나 혹은 단체와 단체 간에 있어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다툼이나 대립을 극복하고 조화하여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룩해 가는 데는 이 화(和)의 정신에 의거해야 한다고 조사님께서서는 강조하여 오셨다.⁵⁾

그리고 이 화(和)는 맹목적인 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와 상호존중하는 것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화경(和敬)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남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⁶⁾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구인사의 대중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인사가 시초에는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기거해 왔으나, 점차 발전하여 대조사님 열반 전에 이미 상수(常隨)제자가 2백여 명에 달하였고, 지금(2000년)은 3백이 넘는 대중이 구인사에 상주하고 있는데, 이 많은 대중이 마치 한 가족과 같이 화합하고 자유로우면서 질서정연하게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이 화(和)의 정신이 밑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⁷⁾

그리고 천태종의 화(和)의 정신은 『사분율』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화합[六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여섯 가지 화합하는 법(가르침)이 있다. 이 법(가르침)에 의지하여 화합하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첫째,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추라. 셋째, 받은 공양을 똑같이 수용하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다섯째,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남의 뜻을 존중하라.⁸⁾

둘째, 관용과 유화(柔和)로 포용하는 것이다.⁹⁾ 이러한 점은 상월 대조사의 삶에서도

5) 『불멸의 등명』, 85.

6) 『불멸의 등명』, 85.

7) 『불멸의 등명』, 86.

8) 『천태종성전』, 576.

9) 『불멸의 등명』, 86.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내용을 『불멸의 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떠한 종교나 종파의 사람이 찾아와도 언제나 만나주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여 오셨으며, 그리고 초기에 있어서 유교·선도(仙道) 기타 종교 신앙단체에서까지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감화되어 귀의해 왔는데, 이를 차별 없이 포섭하고 제자로 삼아 오셨다. …… 한편 제자와 신도 가운데 신심이 굳지 못하여 탈락한 일부 해종(害宗)행위자와 대조사님의 새 불교운동에 대한 몰이해자(沒理解者)들의 중상모략과 비방 등 방해도 적지 않았으나, 대조사님은 항상 인욕심과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여 오셨다.¹⁰⁾

이러한 태도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편협한 선입견이나 아집을 버리고 모든 것의 존재 의의를 인정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사상적 입장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것이다.¹¹⁾

셋째, ‘베푸는 불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베풀어주는 불교,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불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태종의 새불교운동의 이념이고 목표이다(이것이 뒤에 소개할 삼대강령과 삼대지표로 구체화된다).¹²⁾ 그리하여 천태종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 신도가 있는 곳마다 신도들의 청법과 신행을 위주로 하는 시설(말사회관)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비하여 누구나 쉽게 신행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홍법전도(弘法傳道)에 진력하여 오셨다.¹³⁾

III. 천태종의 삼대강령과 삼대지표:

불교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노선

앞에서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불교적 이상사회 추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천태

10) 『불멸의 등명』 86-87.

11) 『불멸의 등명』 87.

12) 『불멸의 등명』 88.

13) 『불멸의 등명』 88.

중에서는 이러한 불교공동체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노선을 제시한다. 하나는 '삼대강령'이고, 다른 하나는 '삼대지표'이다.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삼대강령

'삼대강령'은 1971년 「교시문」에서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밝은 자아의 개현',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사회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본다.

1) 밝은 자아의 개현(開顯)

'밝은 자아의 개현'은 본래 밝은 자기로 복귀함이며, 본래 밝은 자기를 나타냄이다. 이는 현대의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인간성이 소외되고 상실되었는데, 이처럼 소외되고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할 것을 강조함이다. 아울러 모든 생명의 참된 가치를 구현하자는 인간성 복귀의 선언이기도 하다.¹⁴⁾

이 '밝은 자아의 개현'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의 성품(佛性)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의 올바른 주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¹⁵⁾

그리고 『천태종성전』에서는 금광석의 비유를 제시하면서 불성을 관음주송(觀音呪誦) 등의 수행을 통해 계발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치 금광석에 금과 보석이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佛性)이라는 보석이 들어있다. 이 부처의 성품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이다. 이 다섯 가지 부처의 성품의 종자가 중생의 마음 밭(心田)에 있지만, 탐진치 등으로 대표되는 번뇌와 망상에 가리어 드러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부처의 성품이 악업의 잡풀로 인해서 자라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상월대조사는 관음주송 등의 수행을 제시해서 다섯 가지 불성이 드러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¹⁶⁾

이처럼, 밝은 자아가 나타난 경지를 「상월원각대조사법어」에서는 “일심(一心)이 상청청(常淸淨)하면 처처에 연화개(蓮華開)니라”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청정한 마음을 항상 지키면 어디서나 연꽃(밝은 자아가 개현된 모습)이 피어난다는 것이다. 연꽃은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결한 자태를 나타내는 존재이다. 이처럼, 모든 불자가 탐진치의 세속번뇌 속에서 중생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럼

14) 『천태종성전』, 568.

15) 『천태종성전』, 568.

16) 『천태종성전』, 568.

에도 불자가 청정한 마음을 지킨다면 탐진치에 물들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¹⁷⁾

이러한 내용의 '밝은 자아의 실현'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천태지 의가 제시한 '4종류 삼매'와 '십경십승관법'을 거론할 수 있다. '4종류 삼매'는 상좌삼매(常坐三昧), 상행삼매(常行三昧), 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좌선, 염불, 밀교 등의 다양한 수행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4종류 삼매를 통해서 수행의 다양성을 수용할 때 수행의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십경십승관법(+境+乘觀法)은 십경(+境)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관법의 대상에 대해서 열 가지 관법을 닦는 것이다. 십승관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는 자신의 수행경지를 스스로 점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행자가 자신의 경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얕은 경지에 매몰되지 않고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¹⁸⁾

2) 밝은 생활의 창조

'밝은 생활의 창조'는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것이고, 이는 죄업의 어두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혜와 자비의 올바른 생활법칙에서 그 길을 찾는 것이다.¹⁹⁾

그리고 『천태종성전』에서는 밝은 생활을 창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십선(+善)을 거론한다. 그것은 십악업, 곧 살생, 도둑질, 사된 음행, 거짓말, 꾸미는 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것, 탐욕의 마음, 성내는 마음, 사된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내용에 관한 자세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밝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려면 곧 위에 열거한 십악의 길을 밟지 말고 십선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십선의 길은 곧 자기 마음에 숨어 있는 다섯 가지 '부처 씨앗'을 찾아낸 뒤에 잡초 우거진 마음 밭을 갈아엎고 그 씨앗을 심어 기르는 것이다. 다섯 가지 부처의 씨앗은 곧 자비와 복덕과 청정 그리고 진실과 지혜이다. 오계를 지키면 이러한 다섯 가지 부처의 씨앗이 개현되어 밝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²⁰⁾

17) 『천태종성전』, 570.

18) 이병욱 2021b, 71-78.

19) 『천태종성전』, 571.

20) 『천태종성전』, 572.

위 인용문에 이어서, 『천태종성전』에서는 십악(+惡)과 십선(+善)에 대해 더 설명한다. 그래서 십악(+惡)을 행함은 자기 마음속의 불종자(佛種子: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십선(+善)을 지키는 자기 마음속의 긍정적 덕목(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의 종자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한다.²¹⁾

그리고 '밝은 생활의 창조'는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십선계는 우리에게 열 가지 선업을 짓게 하여 공덕을 쌓고 복된 과보를 약속한다. 밝은 생활을 창조하는 십선의 수행은 행복한 가정을 약속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며, 모든 사람이 십선을 지키면 좋은 나라가 이룩된다.²²⁾

이처럼, 십선(+善)이 강조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행해지는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²³⁾

여기에 덧붙여서 고려시대의 천태종에서 바람직한 불교적 삶을 추구한 인물로서 정2품의 관직인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이세재(李世材)를 제시할 수 있다.²⁴⁾ 백련사 결사 4세 천책(天頤, 1206-?)은 이세재를 진정한 재가의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세재는 1236년에 백련사 결사를 찾아와서 백련사 결사 4세 천책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뒤 관료생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법화경』을 부지런히 독송하였다. 이세재는 관직을 그만두고서는 『법화경』을 계속 독송하고 나아가 『법화경』 천여 부를 인쇄하여 보시하기도 하였다.²⁵⁾

또 천태의 25방편 가운데 식제연무(息諸緣務), 곧 인연에 얽힌 여러 일을 줄인다는 것도 밝은 생활의 창조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²⁶⁾ 이것은 다음에 소개할 4가지 항목을 줄이라는 것이다. 첫째, 생활연무(生活緣務)는 집안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일에 골몰하는 것이다. 둘째, 인사연무(人事緣務)는 경조사(慶弔事), 곧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바쁜 것이다. 셋째, 기능연무(機能緣務)는 점술과 주술 등을 행하는 것이다. 넷째, 학문연무(學問緣務)는 경전과 논서를 공부하기는 하지만, 문

21) 『천태종성전』, 572-573.

22) 『천태종성전』, 572.

23) 『천태종성전』, 573-574.

24) 이병욱 2021b, 80.

25) 『호산록』 권하, 「答靈岩守金郎中湄書」(H6, 215c-216a).

26) 이병욱 2021b, 81.

답해서 승부를 가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²⁷⁾ 이러한 활동을 줄일 때,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3) 밝은 사회의 실현

‘밝은 사회의 실현’은 착실한 교화를 전개하여 밝은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²⁸⁾ 이는 불교의 교화를 잘 전개해서 불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밝은 사회의 실현’은 불자들의 자비와 지혜의 실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를 실천하고, 용서와 화합으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²⁹⁾

『천태종성전』에서 밝은 사회는 천태불자(불교인)의 마음속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화합과 자비 교화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³⁰⁾

그리고 『불멸의 등명』에서는 ‘밝은 사회의 실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밝은 사회의 구현은] 복전(福田)운동(보시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의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숭고한 도의(道義)사회와 윤택한 경제사회, 찬란한 문화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³¹⁾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밝은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착실한 교화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천태사상에서는 교화의 방안으로 4실단(四悉檀)을 제시한다. 4실단은 중생을 교화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실단, 위인실단, 대치실단, 제일의실단으로 구성된다. 첫째, 세계실단(世界悉檀)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둘째, 위인실단(爲人悉檀)은 개인에 맞추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셋째, 대치실단(對治悉檀)은 개인에 맞추어서 잘못된 행위를 고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은 불교 궁극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세계실단’과 ‘위인실단’과 ‘대치실단’은 방편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르침을 주고(세계실단), 그럼에도 이해

27) 『摩訶止觀』 권4하 (T46, 42c-43a).

28) 『천태종성전』, 574.

29) 『천태종성전』, 575.

30) 『천태종성전』, 577.

31) 『불멸의 등명』, 84.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개인을 위한 맞춤형 가르침을 제시하며(위인실단), 또 특정 개인의 경우 특정한 문제로 인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대치실단). 그리고 이러한 방편을 잘 활용해서 '제일의실단', 곧 불교 궁극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³²⁾

2. 삼대지표

천태종의 새불교운동의 좌표로서 제시된 것이 '삼대지표'이다.³³⁾ 이 '삼대지표'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의 순서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대중불교

'대중불교'는 사부 대중, 곧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함께 하는 불교를 말한다. 그래서 '대중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불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불교가 출가자 중심이고 사원(사찰)중심이었던 것을 반성하고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³⁴⁾

『천태종성전』에서는 '대중불교의 구현'을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찰불교'에서 '민중불교'로 변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에서 사부대중의 불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둘째, '출가불교'에서 '재가불교'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는 출가자 중심의 불교에서 재가중심의 불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셋째, '염세주의 불교'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구세주의 불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염세주의 불교'는 과거의 불교사찰이 대부분 산중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에 비해, '구세주의 불교'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그런데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방안은 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의 개혁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³⁶⁾ 「조선불교의 개혁안」에서 불교는 염세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

32) 이병욱 2021b, 83-84; 『유마경현소』(X27, 768a-769a).

33) 『천태종성전』, 551.

34) 『천태종성전』, 559.

35) 『천태종성전』, 559-561.

36) 이병욱 2021a, 246-267.

니고 구세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데³⁷⁾,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천태종성전』에서는 ‘염세주의’가 아닌 ‘구세주의 불교’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조선불교의 개혁안」에서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로서 대중에(승려가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말하는데³⁸⁾, 이는 『천태종성전』에서 말한 ‘사찰불교에서 민중 불교로 변화하자는 것’, ‘출가불교에서 재가불교로 바꾸자는 것’과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선불교의 개혁안」에서의 ‘산간에서 가두로’라는 말은, 결국 ‘산속의 불교’에서 ‘도시의 불교’로 전환해서 많은 사람을 포교하자는 것이고, 「조선불교의 개혁안」에서의 ‘승려로서 대중에’라는 말은 승려가 출가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자는 것이다.

『천태종성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사찰불교’에서 ‘민중불교’, 곧 대중이 접근하기 편리한 불교로 변화하자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산간에서 가두로와 상응함), 그리고 『천태종성전』에서는 ‘출가불교’에서 ‘재가불교’, 곧 사부대중의 불교로 바꾸자고 주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승려로서 대중에와 상응함).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용운의「조선불교의 개혁안」의 대중불교	『천태종성전』의 대중불교
염세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구세적으로 전개되는 것	염세주의 불교가 아닌 대중불교를 지향한다.
산간에서 가두로(도시의 불교로 전환해서 많은 사람을 포교함)	사찰불교에서 민중불교로 변화하자는 것 (대중이 접근하기 편리한 불교)
승려로서 대중에(출가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	출가불교에서 재가불교로 변화하자는 것 (사부대중의 불교로 바꾸자는 것)

〈표 1〉

그리고 권기중은 ‘대중불교’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술한다. 곧, 이와 같은 일련의 대중불교운동의 추진은 여타 종단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미래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⁹⁾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37) 『한용운전집』 권2, 165a.

38) 『한용운전집』 권2, 165a.

39) 권기중 2009, 65.

내용을 제시한다. 곧, 대중불교의 실천은 재가불자의 결속력을 가져왔고, 종단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동력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⁴⁰⁾

2) 생활불교

‘생활불교’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불교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불교인이 불교와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불교신도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불교와 관계없는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생활불교’를 주장한 것이다. 만약 일상과 불교의 가르침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불교가 아니다.⁴¹⁾ 그리고 ‘생활불교’는 일상생활이 그대로 불법임을 주장하는 것이다.⁴²⁾

『천태종성전』에서는 ‘생활불교’의 실천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기복(祈福)불교에서 작복(作福)불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복을 빌 것이 아니고 복을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⁴³⁾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천태종성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불교는 인과를 믿고 실천하는 종교이지, 초월적 존재의 영험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다. 즉 인과응보(因果應報)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불교의 근본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적이며 기복 중심의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공덕을 쌓아가는 실천적 불교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⁴⁾

둘째, 유한불교(有閑佛敎)에서 생산불교(生産佛敎)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출가자도 사찰의 자급적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수행으로 삼았다.⁴⁵⁾ 그리고 이 내용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본 종단의 출가자는 낮에는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밤에는 한결같이 관음주송(觀音呪誦)의 수행을 행한다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하고 있으며, 재가의 신도들

40) 김동림(보덕) 2015, 327.

41) 『천태종성전』, 555-556.

42) 『천태종성전』, 557.

43) 『천태종성전』, 557.

44) 『천태종성전』, 557-558.

45) 『천태종성전』, 558.

역시 그것을 본받아 일상 가운데서 주경야선을 실천해가고 있다.⁴⁶⁾

또한 『불멸의 등명』에서 불교인은 주경야선(晝耕夜禪)으로 수행에 힘쓰면서도 한편으로 생업과 생산개척에 힘을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또 재래불교는 비생산적이거나 연세주의적이어서 세속을 떠나 은둔생활을 하는 것을 생활규범과 같이 생각하여 사회와 생산을 등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관을 가진 불교인이 많을수록 나라는 퇴폐해가고 불교는 사회에서 버림을 받아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과거의 그릇된 신앙관을 버리고 나쁜 폐단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주경야선(晝耕夜禪)으로 수행에 정진하면서도 한편 생업과 생산개척에 힘을 기울여서 스스로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국력배양에 기여한다는 것이 생활불교의 요체인 것이다.⁴⁷⁾

셋째, ‘우상불교’에서 ‘실천불교’로 전환함이다. ‘우상불교’는 형상에 얽매어서 스스로 실천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실천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불교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信],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解], 그에 따라 실천해서[行]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證] 노력해야 한다.⁴⁸⁾

그리고 정병조는 이 ‘생활불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술한다. 곧, ‘기복불교’는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함을 말하는 것이고, ‘유한불교’는 현실에 안주하는 매너리즘을 경계한 표현이며, ‘우상불교’는 불교의 근본적 면목을 외면하는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이다.⁴⁹⁾ 따라서 이러한 것을 넘어서자는 것이 ‘생활불교’의 의미이다.

3) 애국불교

‘애국불교’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호국불교’는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옹호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교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

46) 『천태종성전』, 558.

47) 『불멸의 등명』, 78-79.

48) 『천태종성전』, 558.

49) 정병조 2009, 34-35.

고, 불교가 국민의 정신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그런데 ‘애국불교’는 한 국가에만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고, 시방세계를 자비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이다. 다만 출발점이 우리 민족과 나라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자세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애국불교란 기존의 호국불교나 구국불교처럼 한 국가에만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국가를 사랑함(愛國)’이란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체 시방세계를 모두 자비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 국가 나아가 세상 온 우주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 안는 것이다. 다만 그 출발점이 우리 민족과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없는 민족과 개인에게 안정과 발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⁵¹⁾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애국불교’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불교를 국가라는 좁은 영역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다. ‘애국불교’는 중생 각자가 처해있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불교가 넓은 바다라고 한다면 국가와 중생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중생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행할 수 없다. 이런 측면, 곧 불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국가를 강조하는 것이다.⁵²⁾

같은 맥락에서, 김상현은 ‘애국불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종단의 삼대지표 중의 하나인 ‘애국불교’도 보다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애국불교’가 배타적 민족주의에 토대하고 있지 않음을 두루 알릴 필요가 있다.”⁵³⁾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주장한다. 곧 “애국불교의 이념은 협의적인 애국의 의미보다는 개인-사회-국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상적인 불국도를 실현코자 함에 있다.”⁵⁴⁾

그리고 『불멸의 등명』에서는 ‘애국불교’의 구체적 실천과제까지 제시한다. 그것은 국민도의(國民道義) 재건, 혼탁한 사회정화, 복지사회건설, 민족정신문화의 부흥 등이다.

50) 『천태종성전』, 555.

51) 『천태종성전』, 553.

52) 『천태종성전』, 553.

53) 김상현 2009, 30.

54) 김세운 2009, 213.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의 조국현실에 있어서 불교가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민정신 계도(啓導)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것이다. 이의 실천과제로서 국민도의(國民道義) 재건, 혼탁한 사회정화, 복지 사회건설, 민족정신문화의 부흥 등을 위하여 힘쓰는 데 있다. 불자의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여러 과제를 실천하는 것이 애국불교 건립의 방안이며, 이것이 곧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위한 길인 것이다.⁵⁵⁾

3.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의 관계

앞에서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의 관계에 대해 여러 관점을 제기한다. 어떤 선행연구에서는 ‘삼대지표’는 상월대조사의 교화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고, ‘삼대강령’은 천태종의 새불교운동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⁶⁾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종단이 지향하는 목표로서 ‘삼대지표’와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큰 줄기가 되는 행동요소로서 ‘삼대강령’에 대해 밝히고 있다.”⁵⁷⁾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새 불교운동의 ‘삼대지표’는 종단의 대중운동적 목표이고, ‘삼대실천강령’은 천태종도가 수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⁸⁾ 여기서는 선행연구 가운데 두 번째 주장(삼대지표는 종단이 지향하는 목표, 삼대강령은 삼대지표의 실현을 위한 행동요소)과 세 번째 주장(삼대지표는 종단의 대중운동적 목표, 삼대강령은 천태종도가 수지할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보고자 한다.

먼저, ‘삼대강령’은 개인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점차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첫째, ‘밝은 자아의 개현’은 본래 밝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자신 안에 불성을 관음주승 등의 수행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둘째, ‘밝은 생활의 창조’는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것인데, 이것의 구체적 방법으로 십선도(十善道)를 거론할 수 있다. 따라서 ‘밝은 생활의 창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밝은 사회의 실현’은 착실한 교화를 전개해서 밝은 사회를 건

55) 『불멸의 등명』 79.

56) 원각불교사상연구원 편 2010, 350, 355.

57) 이승남(평도) 2022, 150.

58) 김영주(세운) 2016, 98.

설하자는 것이고, 이는 불자가 자비를 실천하고 용서와 화합을 잘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삼대강령’은 자신의 불성을 수행을 통해 드러내고, 심선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닦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며, 착실한 교회활동을 통해 불교적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 점차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대지표’는 불교종단(천태종)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첫째, ‘대중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불교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불교가 출가자 중심이고 사원중심이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 둘째, ‘생활불교’는 일상생활을 떠나서 불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이 그대로 불법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앞에 소개한 ‘대중불교’와 연결하면, ‘대중불교’와 ‘생활불교’는 분리되기 어렵다. ‘대중불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불교’가 실천되어야 한다.⁵⁹⁾ 그래서 ‘대중불교’와 ‘생활불교’는 긴밀한 연결 관계에 있다. 셋째, ‘애국불교’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고, 이는 불교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이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애국불교’는 한 국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방세계를 모두 자비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출발점이 우리 민족과 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앞의 두 가지 항목(대중불교, 생활불교)과 관련해서 보면, ‘대중불교’와 ‘생활불교’가 잘 성취되었을 때, 그 결과 ‘애국불교(불교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이 증진함)’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⁶⁰⁾

이렇게 보면, 천태종에서 불교공동체 정신(불교적 이상사회)을 실현하는 방안에 두 노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삼대강령’인데, 이는 개인에서 출발해서 불교적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삼대지표’인데, 이는 불교종단(천태종)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고, ‘대중불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불교’를 실천해야 할 것이고, 이 ‘대중불교’와 ‘생활불교’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애국불교’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선행연구의 주장(두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과 비교하면, 여기서는 불교공동체 정신(불교적 이상사회)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노선이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9) 천태종 대각불교 명의를 『신도회규약(현장)』에서도 대중불교와 생활불교를 함께 언급한다. “3. 우리는 참신하고 대중적인 불교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의 불교화를 이룩한다.” [김영주(세운) 2016, 107 재인용.]

60) 김상현 2009, 17에서는 ‘애국불교’를 ‘생활불교’와 ‘대중불교’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곧 “애국불교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애국불교는 생활불교와 대중불교 등과 함께 논의될 때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삼대강령	삼대지표
개인에서 출발해서 불교적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것	불교교단(천태종)의 목표를 제시한 것
자신의 불성을 수행을 통해 드러내고(밝은 자아의 개현), 십선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닦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며(밝은 생활의 창조), 착실한 교화활동을 통해 불교적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것(밝은 사회의 실현)	대중불교(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불교)와 생활불교(일상생활이 그대로 불교)가 잘 성취되었을 때, 애국불교(불교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행복이 증진함)가 나타난다.

<표 2>

그런데 이러한 ‘삼대지표’와 ‘삼대강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월대조사의 「교시문」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삼대지표’와 ‘삼대강령’과 관련된 「교시문」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종도 여러분은 본 종의 역사적 의의와 시대적 사명을 되새기어 정법중흥(正法中興)과 구국제세(救國濟世)의 성업(聖業)에 이마지하고 독실한 신행으로 본 종의 교지를 받들어 불교의 대중화·생활화로써 지상불국(地上佛國)을 실현할 것을 발원할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다음의 삼대강령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부처님 앞에 선사할 지어다.

1. 생명의 참뜻을 자각하여 밝은 자아를 개현(開顯)함으로써 인간 즉 불타(佛陀)의 진리를 체득한다.
2. 정법의 대도를 실천하여 밝은 생활을 창조함으로써 생활 즉 불법(佛法)의 이념을 구현한다.
3. 착실한 교화를 전개해서 밝은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사회 즉 승가(僧伽)의 이상을 구현한다.⁶¹⁾

위에 소개한 「교시문」에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생활화’를 통해서 ‘지상불국(地上佛國)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불교의 대중화’는 ‘대중불교’로 연결되고, ‘불교의 생활화’는 ‘생활불교’와 관련이 있으며, ‘지상불국’을 실현한다는 것은 ‘애국불교’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삼대강령’은 천태종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구체적으로 실

61) 『천태종성전』, 566-567.

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삼대지표'와 '삼대강령'은 불교공동체 정신(불교적 이상사회 추구)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노선이고, 그 가운데 '삼대지표'는 천태종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 '삼대강령'은 천태종의 구성원이 실천해야 할 항목을 제시한 것이 된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지문」에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이 잘 나타나는데, 그것은 불교의 근본정신이 불교적 이상세계, 곧 지상에 불국정토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불멸의 등명』에서 천태종 공동생활의 기본정신의 세 가지를 밝힌다. 첫째, 화(和)로써 공동정신의 기본정신을 삼는다는 것이다. 둘째, 관용과 유화(柔和)로써 포용하는 것이다. 셋째, 베푸는 불교가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 '베푸는 불교'에서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의 노선이 파생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장에서는 불교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천태종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노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은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이다. '삼대강령'은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해서 점차로 그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이다. 이 '삼대강령'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다. 첫째, '밝은 자아의 개현'인데, 이는 부처의 성품(佛性)을 드러내는 것이고, 관음주송 등의 수행을 통해서 불성이 드러날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밝은 생활의 창조'인데, 이는 생명의 참다운 가치를 창조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십선도(十善道)를 제시한다. 셋째, '밝은 사회의 실현'인데, 이는 착실한 교화를 전개해서 밝은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적 이상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이 불교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자비를 실천하고, 용서와 화합으로 잘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삼대지표'는 불교종단(천태종)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 '삼대지표'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대중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불교를 말한다. 이 '대중불교'의 주장은 만해 한용운의 「조선 불교의 개혁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생활불교'는 일상생활을 떠나

서 불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이 그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앞의 '대중불교'와 연결해서 보자면, '대중불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불교'가 실천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중불교'와 '생활불교'는 서로 긴밀히 연결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애국불교'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한 것인데, 이 '애국불교'의 정신을 한 나라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이 '애국불교'의 정신은 시방세계를 자비의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인데, 다만 그 출발점이 우리 민족과 국가일 따름이다. 그리고 앞의 두 가지(대중불교, 생활불교)와 관련해서 본다면, '대중불교'와 '생활불교'가 잘 성취되었을 때 그 결과 '애국불교(불교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이 증진함)'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삼대강령'과 '삼대지표'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둘(삼대강령과 삼대지표)은 불교공동체 정신(불교적 이상사회)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노선인데, '삼대강령'은 개인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그것이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져 가는 것이고, '삼대지표'는 불교종단(천태종)의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

불교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삼대강령'의 내용처럼, 개인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십선도를 실천해서 자신의 내면을 닦으면서 주변의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비의 마음에 근거해서 착실한 교화를 전개해서 불교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불교종단의 관점에서 보자면, '삼대지표'의 내용처럼, 불교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불교를 추구하고(대중불교), 일상생활이 그대로 불법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생활불교), 이 두 가지(대중불교와 생활불교)가 잘 성취되었을 때 그 여력이 애국불교의 길에도 미칠 것이다.

T: 대정신수대장경

H: 한국불교전서

X: 만속장경

『호산록』(H6)

『유마경현소』(X7)

『마하지관』(T46)

『천태종성전』, 1971/2017, 서울: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불멸의 등명 -상월원각대조사일대기』, 2000, 충북 단양: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한용운전집』 2권, 1973, 서울: 신구문화사.

원각불교사상연구원 편, 2010, 『한국천태종사』, 서울: 천태종출판부.

권기중. 2009. 「21세기 새불교운동으로서 대중불교」, 『천태학연구』12집, 원각불교사상연구원, 55-65.

김동림(보덕). 2015. 「대한불교천태종 삼대지표의 실천에 대한 연구」, 『대각사상』24집, 대각사상연구원, 303-333.

김상현. 2009. 「애국불교의 이념과 성격 호국불교와 구국불교를 비교하면서」, 『천태학연구』12집, 원각불교사상연구원, 15-30.

김세운. 2009. 「한국천태종의 애국불교사상」, 『천태학연구』12집, 원각불교사상연구원, 203-214.

_____. 2016. 「상월 원각의 연구 천태종 중창과 새 불교운동을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183.

이병욱. 2021a. 「불교개혁론에서 바라본 대한불교천태종의 대중불교」, 『동아시아불교문화』45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41-274.

_____. 2021b. 「천태종의 삼대강령의 실천방안 검토」, 『동아시아불교문화』48집,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67-96.

이승남(광도). 2022. 「대한불교 천태종의 애국불교와 세계평화」, 『불교학리뷰』31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정병조. 2009. 「생활불교의 이념과 실천」, 『천태학연구』12집, 원각불교사상연구원, 33-51.

Re-examination of the Buddhist Community Spirit of the Cheontae Order: Focusing on the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Three Great Mottos

Byung Wook Lee

Joong-Ang Sangha University Lectuer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Buddhist community spirit of Cheontae Order and also look into two lines to realize the Buddhist community spirit. In Chapter 2, we learn about the Buddhist community spirit of the Cheon - taе Order. It is clearly expressed in Gyosimun (敎示文), and its content is to edify the people of society well and achieve the Pure Land of the Buddha Field land on earth. There is also a passage that reveals the basic spirit of communal life, which includes emphasizing the spirit of harmony, embracing tolerance and conciliation, and becoming Buddhism of benevolence.

In chapter 3, we examine two lines for realizing the Buddhist community spirit. First of all,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are approached from the individual's perspective, and their scope gradually expands. This fundamental principles consist the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the emergence of a bright self, the creation of a bright life, and the realization of a bright society. First, the emergence of a bright self is to reveal Buddha-nature. Second, the creation of a bright life means creating the true value of life, and ten whole-some ways are presented in a specific way. Third, the realization of a bright society means building a bright society through constant edification. And

the three great mottos ar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eontae Order. These the three great mottos are comprised of the following items: Buddhism for the Populace, Buddhism in Daily Life, and Patriotic Buddhism. First, Buddhism for the Populace refers to Buddhism that is practiced by the fourfold community. Second, Buddhism in Daily Life means that Buddhism does not exist outside of everyday life. Third, Patriotic Buddhism contributes to improve the happiness of the country and people through Buddhism.

key words: Pure Land of the Buddha Field, the emergence of a bright self, the creation of a bright life, the realization of a bright society, Buddhism for the Populace, Buddhism in Daily Life, Patriotic Buddhism.